

# 자영업 고용 구조와 소득 실태

김복순\*

## I. 머리말

OECD 회원국 중 자영업 비중이 상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내부에서는 중장년층의 자영업으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영세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로 인한 자영업 소득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경쟁과열로 자영업의 소득창출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으로 빈곤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형화된 기업들이 도소매업 등에 진출하면서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최근 금융산업을 시작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많은 임금근로자, 정년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들까지 제2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실직 후 이들은 어떤 형태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영업의 현 주소를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최근 자영업의 고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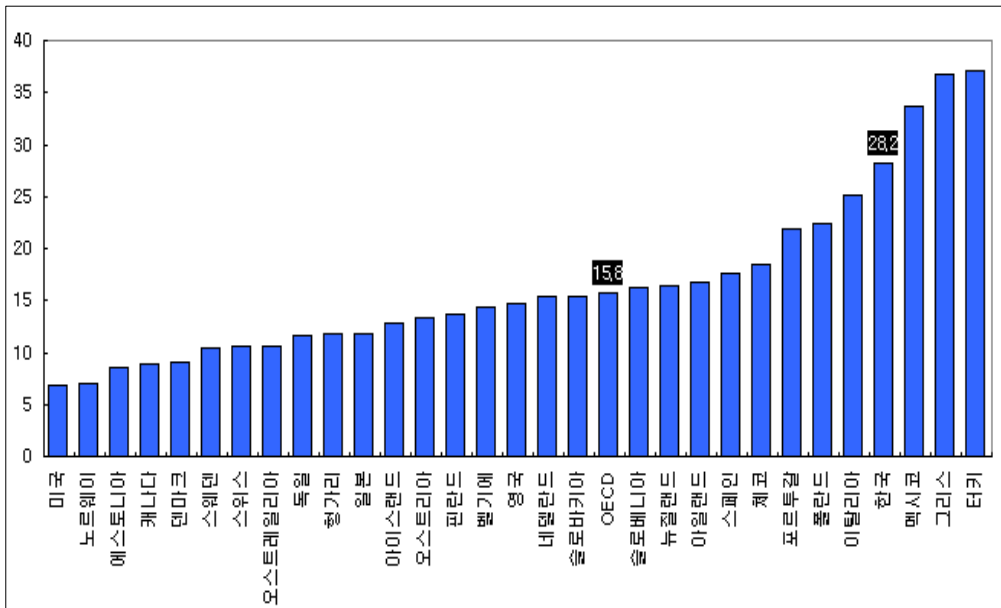
### 1. 자영업 고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와 더불어 상당히 높다.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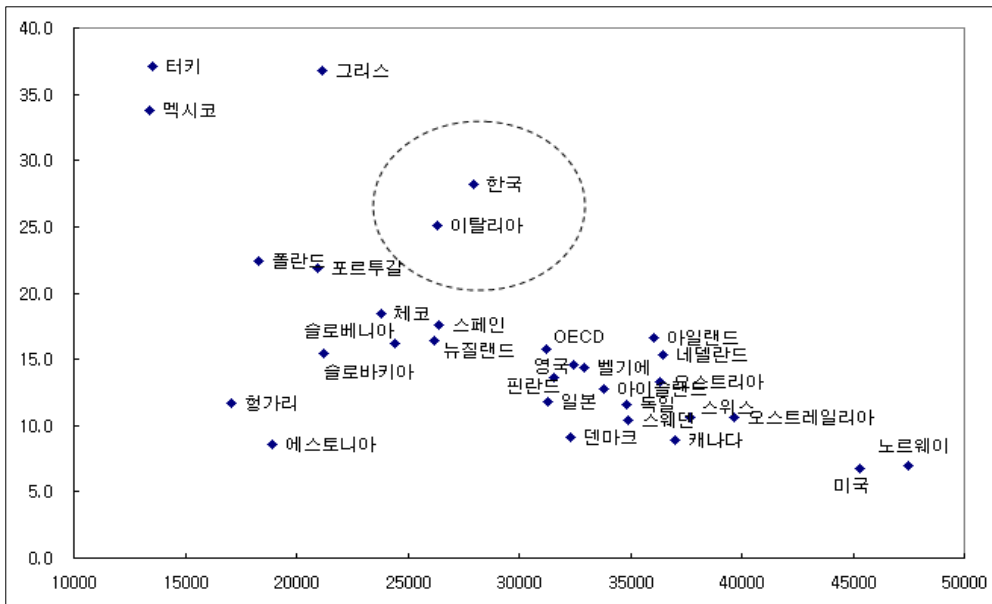
[그림 1] OECD 회원국의 자영업 비중(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012년)

(단위 : %)



주 : OECD 평균은 2011년 자료임.  
 자료 : <http://stats.oecd.org>

[그림 2] OECD 회원국의 1인당 부가가치와 자영업 비중(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012년)



주 : OECD 평균은 2011년 자료임.  
 자료 : <http://stats.oecd.org>

〈표 1〉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취업자	22,139	22,557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임금근로자	14,402	14,894	15,970	16,206	16,454	16,971	17,397	17,712	18,195
상용직	7,269	7,625	8,620	9,007	9,390	10,086	10,661	11,097	11,713
임시일용직	7,134	7,270	7,350	7,200	7,064	6,885	6,736	6,615	6,482
비임금근로자	7,736	7,663	7,463	7,371	7,052	6,858	6,847	6,969	6,872
자영업	6,043	6,110	6,049	5,970	5,711	5,592	5,594	5,718	5,65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29	1,679	1,562	1,527	1,517	1,499	1,505	1,549	1,51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413	4,431	4,487	4,443	4,194	4,093	4,088	4,169	4,141
상용직 비중	32.8	33.8	36.8	38.2	39.9	42.3	44.0	45.0	46.7
자영업 비중	27.3	27.1	25.8	25.3	24.3	23.5	23.1	23.2	2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은 높은 편에 속한다. 2012년 기준 1인당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체코 등이지만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자영업 비중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자영업 비중은 각각 28.2%, 25.1%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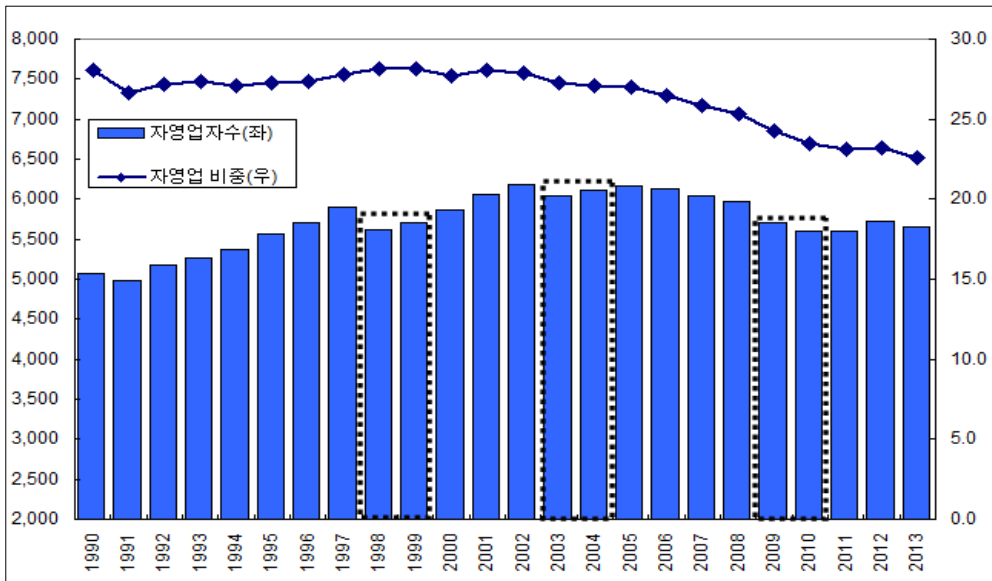
2005년 이후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현재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제외) 수는 5,651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5%에 달한다. 또한 2013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385천 명 증가하였다. [그림 3]을 보면 2013년의 고용증가는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변화를 보면 상용직을 제외한 모든 지위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 또한 전년대비 67천 명 감소하여 2012년 124천 명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면서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같이 경기침체에 자영업 고용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경험한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많은 자영업 특히 영세 소자본 자영업을 중심으로 도산을 경험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259천 명의 자영업이 문을 닫았고 이후에도 자영업 감소세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계속된 고용감소세가 멈춘 것이 2011년 8월이다. 이후 17개월 동안 자영업 고용증가가 지속되었고 상용직과 함께 고용증가세를 견인하였다. 이 시기에 자영업은 창업이 활발했다기보다는 이미 노동시장에 존재해 있던 자영업의 유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2>를 보면 자영업이 반짝 증가했던 2011~2012년 기간 동안 창업한

[그림 3] 자영업 고용규모 및 고용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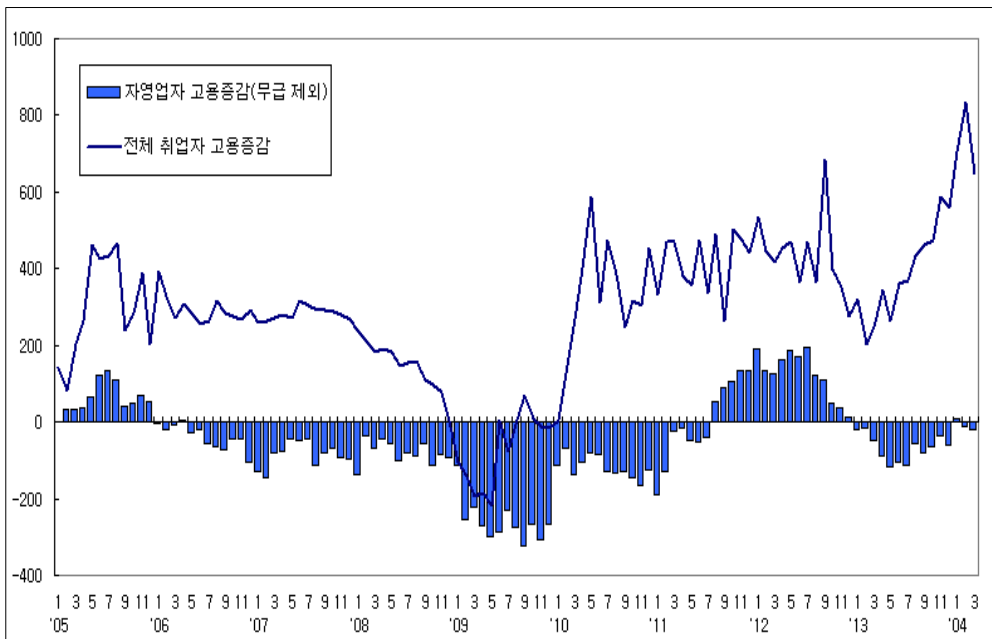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4] 취업자와 자영업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자영업의 사업체 유지기간에 따른 산업별 비중

(단위: 천 개, %)

		창업한지 1년 미만인 사업체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사업체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자영업 수		649 (-9)	601 (-47)	483 (-119)	5,032 (63)	5,202 (170)	5,264 (62)
산업별 비중	건설업	4.8	5.0	4.0	6.7	7.3	6.7
	제조업	4.4	4.7	4.1	8.3	7.7	7.3
	도소매업	21.3	19.8	22.7	22.1	21.9	21.2
	운수업	9.9	9.4	11.1	10.9	10.9	11.4
	음식숙박업	18.7	16.4	14.2	8.6	8.9	9.1
	교육서비스업	10.9	15.3	13.1	4.6	4.7	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0.5	3.3	1.2	1.3	1.4
	협회·기타개인서비스업	10.6	10.6	10.2	8.0	8.5	8.4

주: ( )안은 자영업 고용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자영업 규모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 온 자영업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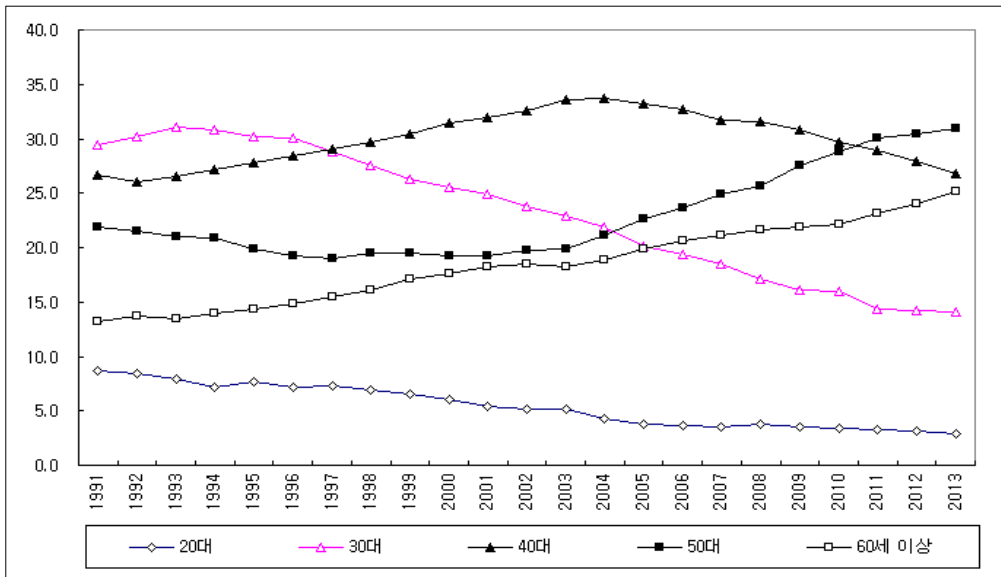
2013년 들어서면서 전체 취업자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고용은 2012년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 등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의 경우 이미 3개월 전부터 감소세가 시작되었다. 2014년 1/4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7천 명의 자영업이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2. 자영업 특징: 중고령층,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13년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층 비중은 2004년 40%를 넘어섰고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30~40대 연령층에서의 자영업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자영업 비중은 30~40대 연령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자영업은 30~40대 연령층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30~40대 연령층의 자영업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두 연령층 간에 자영업 비중은 역전되었고 2013년 현재 자영업은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고령층의 규모(3,169천 명)는 상당하다.

[그림 5] 자영업의 연령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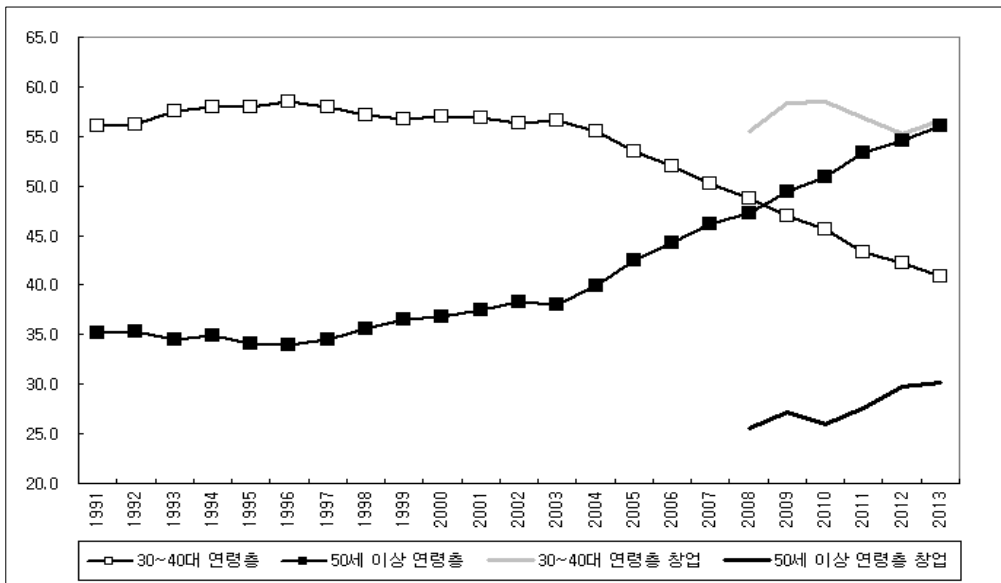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자영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만 포함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6] 자영업의 30~40대 연령층과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변화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자영업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만 포함함.  
 창업은 사업체를 운영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을 의미하며, 각년도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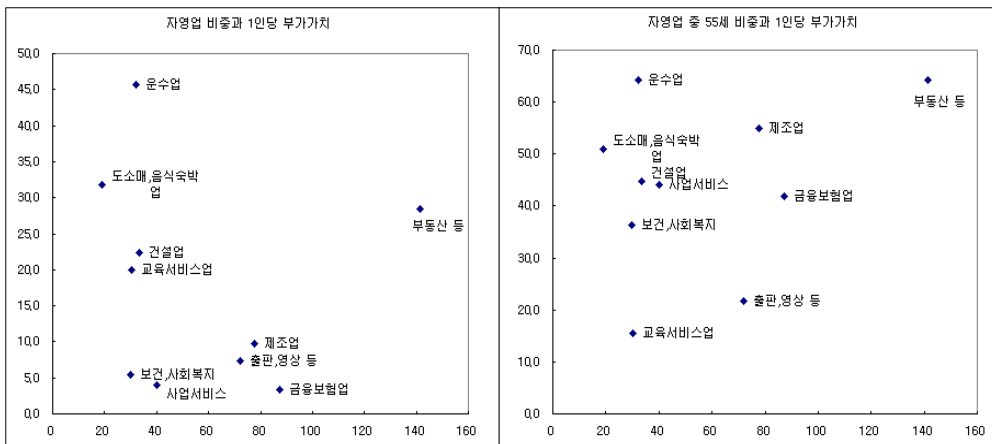
2013년 한 해 동안 67천 명이라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더군다나 2012년 전년대비 124천 명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013년 휴·폐업, 도산을 겪은 자영업의 규모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2013년 자영업의 감소는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5천 명)에 집중되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각각 28천 명, 23천 명 감소하였다. 이들 산업내 자영업 비중 또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자영업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산업 특성상 영세 생계형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어 2012년 소자본으로 시작했던 창업이 2013년에는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어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자영업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업과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자영업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업의 자영업 비중은 여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45.7%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10명당 약 5명이 자영업이라는 것이다.

[그림 7]은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와 자영업 비중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 특히 운수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저부가가치 산업내 55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 비중은 더욱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서비스업, 그것도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앞에서 창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을 보면, 이들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임금근로를 포함하여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림 7]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와 자영업 비중(2013년)

(단위: 백만 원, %)



주: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는 산업별 실질GDP를 취업자 수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3〉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의 산업별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7	2009	2010	2012	2013	2014.1/4
자영업 고용 증감	전 체	-85	-259	-118	124	-67	-7
	농림어업	-43	-30	-44	-6	0	4
	건설업	-44	-32	31	38	-23	-31
	제조업	-9	-27	6	-14	-28	-20
	서비스업	12	-173	-112	106	-17	4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8	-76	-102	54	-55	-4
	도소매업	-69	-27	-53	27	-35	-18
	운수업	55	5	11	18	20	-7
	음식숙박업	-19	-49	-50	27	-20	14
	출판·영상 등	-6	-8	15	-8	-3	13
	금융보험업	-2	-15	-1	-0	-1	6
	부동산 등	5	-10	-8	-4	-13	-13
	전문·과학 등	-6	-0	2	19	-2	20
	사업시설서비스	2	-3	1	-1	8	16
	교육서비스업	17	3	-8	22	22	1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	5	3	-2	15	3
	예술·여가관련	-3	-7	-4	-5	-12	11
협회·기타개인서비스업	37	-66	-20	12	2	-34	
산업내 자영업 비중	취업자 대비 자영업 비중	25.8	24.3	23.5	23.2	22.5	22.1
	농림어업	61.7	61.8	62.2	62.3	62.7	67.3
	건설업	21.8	19.5	20.9	23.5	22.4	22.8
	제조업	11.7	11.6	11.2	10.6	9.7	9.4
	서비스업	26.1	24.2	23.2	22.8	22.3	22.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5.3	34.4	33.0	32.9	31.7	30.8
	도소매업	37.1	36.5	35.2	34.4	33.7	32.4
	운수업	45.6	45.2	44.9	45.3	45.7	44.5
	음식숙박업	32.0	30.5	28.6	30.1	28.1	27.8
	출판·영상 등	7.4	6.4	8.5	7.6	7.3	8.9
	금융보험업	6.3	3.6	3.3	3.6	3.3	3.6
	부동산 등	35.3	33.5	30.9	31.1	28.4	25.1
	전문·과학 등	14.6	13.5	13.2	12.6	12.5	14.0
	사업시설서비스	4.7	4.7	4.4	3.6	4.1	5.0
	교육서비스업	19.6	18.6	18.5	18.7	19.9	20.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7	6.7	6.1	4.9	5.4	5.4
	예술·여가관련	32.2	33.6	33.7	35.1	33.5	36.7
협회·기타개인서비스업	44.5	41.2	39.4	38.6	38.0	3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들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의 노동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고령층에서 자영업이 증가한다는 것, 그것도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나 빈곤 측면에서나 정책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창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 규모는 2013년 8월 현재 483천 명이다. 국제금융위기로 자영업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을 시기에도 자영업 창업(1년 미만)은 646천 명인 것에 비하면 2013년 창업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조사된 ‘일한 경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제외)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순으로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운수업 비중이 높은 반면, 30~40대 연령층은 도소매업 비중이 높아 연령별로 다

〈표 4〉 창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 고용증감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고용규모						비 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684	646	658	649	601	483	100	100	100	100	100	100
산업별	농림어업	33	37	41	36	33	19	4.8	5.7	6.3	5.5	5.6	3.9
	건설업	29	30	42	31	30	19	4.2	4.7	6.3	4.8	5.0	4.0
	제조업	22	27	27	29	28	20	3.2	4.3	4.1	4.4	4.7	4.1
	서비스업	599	550	548	553	510	425	87.5	85.1	83.2	85.3	84.8	88.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78	247	252	259	218	178	40.6	38.3	38.2	40.0	36.2	36.9
	도소매업	163	139	147	138	119	110	23.8	21.6	22.4	21.3	19.8	22.7
	운수업	50	45	46	64	56	53	7.4	6.9	7.0	9.9	9.4	11.1
	음식숙박업	115	108	104	121	99	69	16.8	16.8	15.9	18.7	16.4	14.2
	교육서비스업	96	93	87	71	92	63	14.1	14.5	13.3	10.9	15.3	13.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	7	6	9	3	16	1.0	1.1	1.0	1.4	0.5	3.3
	협회·기타개인서비스업	82	76	65	69	64	49	11.9	11.8	9.9	10.6	10.6	10.2
연령별	20대	119	84	88	88	81	58	17.3	13.0	13.4	13.5	13.5	12.1
	30대	183	187	199	166	162	133	26.7	28.9	30.3	25.7	26.9	27.6
	40대	197	190	186	203	170	139	28.8	29.4	28.2	31.3	28.3	28.9
	50대	113	118	120	124	122	101	16.5	18.3	18.3	19.1	20.2	20.9
	60세 이상	62	57	51	55	58	45	9.1	8.8	7.7	8.5	9.6	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표 5〉 현재 자영업 중 일한 경험 유무에 따른 산업별 비중

(단위 : %)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경험유	임금 → 자영업	전 체	21.3	14.7	14.0	9.8
		50세 이상	13.1	29.6	9.9	4.8
		30~40대	24.4	10.9	16.4	5.9
	비임금 → 자영업	전 체	24.3	11.9	19.7	12.3
		50세 이상	20.4	24.3	19.5	4.9
		30~40대	29.1	7.7	21.2	16.7
경험무 → 자영업	전 체	24.0	3.0	9.7	20.4	
	50세 이상	18.4	1.8	13.2	0.0	
	30~40대	33.0	3.1	10.9	1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2013년 원자료.

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자영업의 경우 음식숙박업 부문에 창업하는 비중이 임금근로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연령층 자영업 중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도소매업에 창업하는 비중이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한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서 창업 풀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자영업 가구의 소득 및 빈곤 실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된 자영업 가구의 소득 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영업 가구의 소득은 3,492천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와의 소득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면 2013년 자영업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만 전년 수준을 유지할 뿐 경상소득, 시장소득 등은 감소하였으며, 이 모든 소득 측면에서 임금근로 가구와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영업 가구는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처분가능소득 수준이 낮고, 남성 자영업 가구주와 남성

〈표 6〉 가구별 소득 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명목)

(단위: 천 원)

		소득	경상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2009	전체 가구	3,469	3,332	3,179	3,044
	임금근로 가구	3,853	3,700	3,592	3,351
	자영업 가구	2,880	2,769	2,548	2,575
2010	전체 가구	3,670	3,529	3,357	3,206
	임금근로 가구	4,008	3,881	3,755	3,491
	자영업 가구	3,151	2,987	2,745	2,767
2011	전체 가구	3,894	3,761	3,577	3,404
	임금근로 가구	4,249	4,116	3,978	3,685
	자영업 가구	3,324	3,191	2,935	2,953
2012	전체 가구	4,127	3,987	3,796	3,611
	임금근로 가구	4,492	4,358	4,219	3,907
	자영업 가구	3,508	3,359	3,079	3,110
2013	전체 가구	4,203	4,069	3,871	3,688
	임금근로 가구	4,606	4,472	4,329	4,015
	자영업 가구	3,492	3,358	3,063	3,111

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표 7〉 가구주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단위: 천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 영 업 가 구	전 체	2,439	2,554	2,575	2,767	2,953	3,110	3,111	
	성 별	남성	2,508	2,619	2,645	2,869	3,106	3,233	3,216
		여성	2,193	2,298	2,314	2,402	2,370	2,637	2,722
	연 령 별	30세 미만	1,768	1,589	1,807	1,588	1,513	1,924	2,740
		30~50세 미만	2,686	2,887	2,980	3,114	3,387	3,488	3,643
50세 이상		2,250	2,321	2,285	2,535	2,670	2,864	2,808	
임 금 근 로 가 구	전 체	3,199	3,408	3,351	3,491	3,685	3,907	4,015	
	성 별	남성	3,376	3,630	3,531	3,695	3,904	4,129	4,201
		여성	2,345	2,335	2,372	2,412	2,639	2,856	2,984
	연 령 별	30세 미만	2,432	2,519	2,620	2,643	2,929	2,932	2,967
		30~50세 미만	3,258	3,472	3,475	3,643	3,796	4,005	4,165
50세 이상		3,207	3,415	3,193	3,289	3,522	3,793	3,805	

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표 8〉 50세 이상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소득 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단위: 천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2,706	2,887	3,073	3,326	3,303
상용직	4,027	4,000	4,249	4,560	4,542
임시·일용직	2,307	2,392	2,545	2,742	2,800
자영업(고용주+자영자)	3,032	3,300	3,483	3,676	3,642
기타(무급+기타)	1,577	1,799	1,935	2,112	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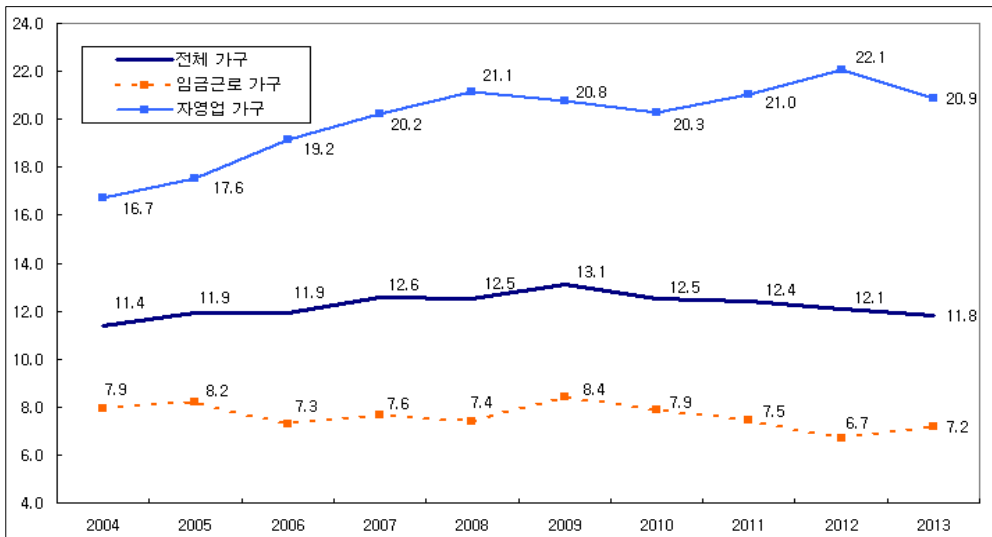
주: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임금근로 가구주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 자영업 가구주와 임금근로 가구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처분가능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가 50세 이상 자영업(고용주와 자영자)인 경우 3,642천 원으로 나타나 가구주가 50세 이상 상용직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자영업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2인 이상 도시가구)

(단위: %)



주: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자영업 가구의 빈곤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2013년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1.8%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자영업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9%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빈곤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55세 이상 고령층인 자영업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2.1%로 고령층 자영업 가구의 빈곤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 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비율을 의미한다.

자영업 가구는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자영업 가구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빈곤 위험성에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고령층인 경우 그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 가구의 저소득, 빈곤화 실태는 앞으로 자영업 가구를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정책 중 소득보장정책의 시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 IV. 맺음말

자영업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다보니 그로 인한 자영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을 모른 채 이들 과밀업종에 창업을 하는 것인가? 대부분은 자영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것이다.

지금 몇몇 기업들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든가, 창업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실제로 2013년 조사에 의하면 창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 중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51.2%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대부분은 이미 포화상태인 일부 업종에 창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실직 후 충분한 준비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했다가 기존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부채만 떠안은 채 폐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년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퇴직이전 형성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도산한 사람들을 위해 재취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KLI**